

중국, 이제는 제대로 보자!

- 중국의 과거·현재·미래,
우리의 대응은? -

2018. 1. 22(월)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1. 한국과 중국에 던지는 질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중국 경착륙 위기 여전히 유효한가

한국경제 골든타임 임박...

중국,
아직도 멀었다?
진짜 그럴까...

중국의
대국굴기

중국에 대한 오해?

한국의 살길은 어디에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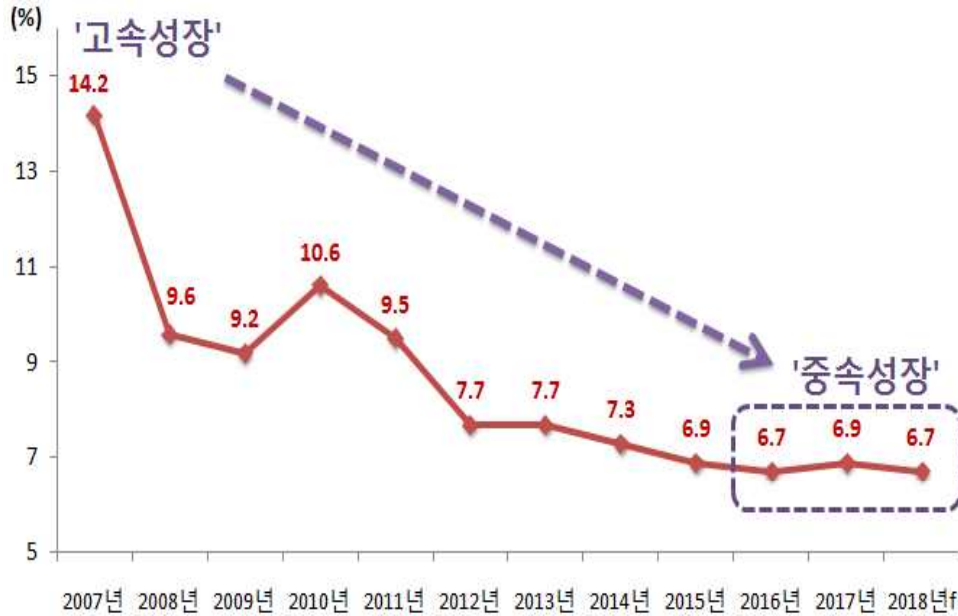
2. 과거 + 현재 = History ⇒ 진단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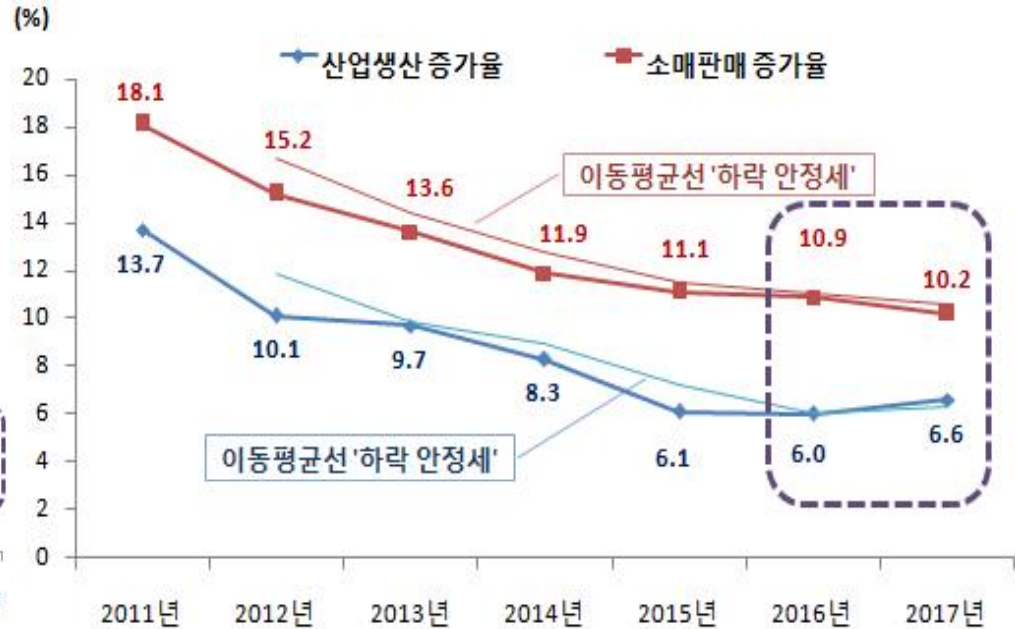
출처: Google Image

과거와 현재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대응전략 마련!

3. 중국 경착륙? 그리고 현재 - (1) 주요 경제 지표



출처: CEIC('07~'16년), 중국 국가통계국('17년), JP모간('18년 예측치)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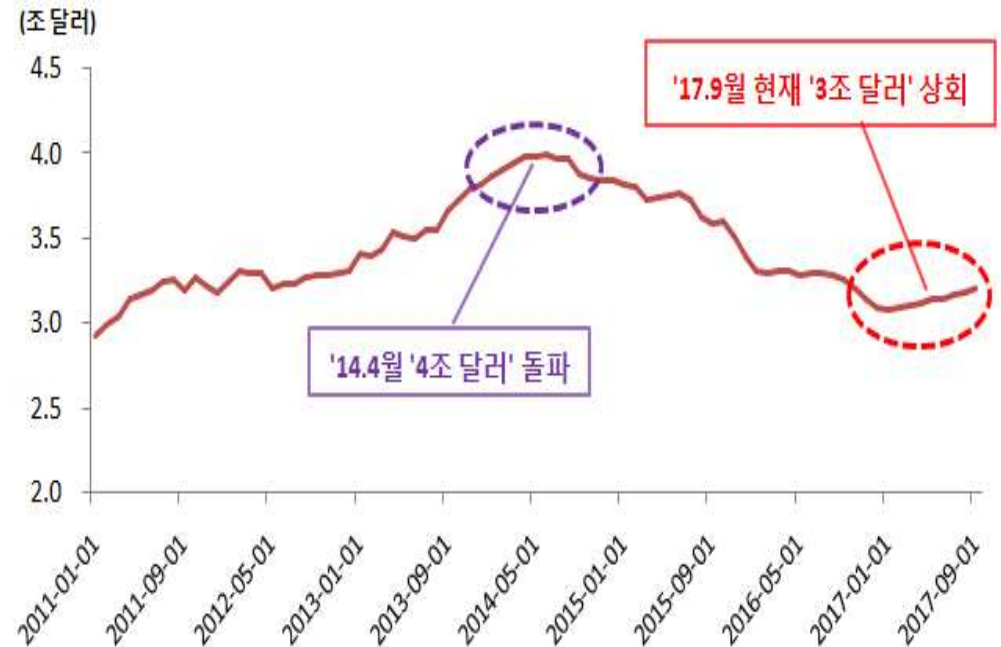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6%대에서 중속성장 지속 중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은 한계에 도달, 안정성장(穩中求進) 추구
 - 주가지수, '15.6월 폭락사태 이후('15.8월 2,900pt) 안정화 및 점진적 상승세 지속으로 '18.1월 3,410 기록
 - 서비스업 중심의 민간소비가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패러다임 변경, 新常态)으로 경제의 버팀목 역할 증대
- * 서비스업의 GDP비중이 '12년부터(45.3%) 제조업(45.2%)을 역전하기 시작하여, '17년 기준 52%로 제조업(40%) 큰 폭 상승

- '17년말 기준 산업생산/소매판매 증가율은 하락세로 각각 6.6% 및 10.2%를 기록함. PMI(구매자관리자지수, 50이상 경기확장)는 '15년 49.7 기록 후, '16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17.12월 51.6 기록 중(17개월 연속 50 상회)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5.2월 14%대에서 '17년말 기준 7.2%으로 하락 후 7%대를 유지 중
- '17.11월 기준 신규취업자수 12.8백만명으로 연간 목표치 (11백만명) 초과 달성, '16.12월 이후 실업률 4% 하회 지속

3. 중국 경착륙? 그리고 현재 - (2) 환율과 외환보유액



출처: 인민은행('18.1.10자 검색)



출처: 국제금융센터('18.1.10자 검색)

-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15.6월 6.11에서 지속 상승(위안화 절하)하며 '16.12월 6.94 기록
- * '15년 중 실물경기 불안과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옵션투기 확대, 자본유출 심화 등으로 위안화환율/외환보유액 큰 폭으로 변동
- '17.1월 하락 전환후 '17.12월 6.53에서 소폭 등락 중, 향후 정부관리 강화로 큰 폭의 조정 없을 것
- ↳ 단 '18년에는 유럽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및 미금리 인상으로 인해 환율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14.6월 4조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이 '15.3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16년말 3조 달러 이하로 추락
- '17.1월부터 외환보유액이 회복세를 보이며, 동년 9월 중 3조 달러를 상회하며 유지 중
- ↳ 자본유출 규제(해외송금 규제 등), 외환시장 수급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로 외환보유액 안정세 지속 기대





3. 중국 경착륙? 그리고 현재 - (3) 4대 리스크 동향

< 부동산 버블 등 4대 금융리스크 진단결과 >

평가 항목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진단 결과 ³⁾
	절대 위험도 ¹⁾	상대 위험도	정책대응 위험도	
부동산 버블	중립	해당사항 없음 ²⁾	낮음	
그림자금융	중립	낮음	중립	
부채	정부·지방	낮음	낮음	
	기업	높음	높음	
은행부실	중립	중립	낮음	

주: 1) 위험도 수준에 따라 '낮음(1점)', '중립(2점)', '높음(3점)' 3단계로 구분

2) 부동산의 경우 국가별 상대 비교가 불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3)  : 양호,  : 중립,  : 악화,  : 위기

※ 1.4점 미만 '양호', 1.4~2.0점 '중립', 2.0~2.6점 '악화', 2.6점 초과 '위기'

출처 : 중국의 4대 금융리스크 진단과 경제경착륙 가능성 전망('16.6월), 한국수출입은행, 평가모델, 정량수치 등 평가방법 및 결과는 동 보고서 참조 요망

- 부동산 버블 및 그림자 금융 리스크 '중립', 정부지방 부채 리스크 '낮음'으로 '16년 평가 시와 유사하나 중국정부 관리 강화 중

* 미국, 일본 그림자금융/GDP('16년, FSB, '17.5월) 각각 82%, 67%로 중국(62%, 국가통계국) 대비 높음

- 기업부채('17년 상반기, GDP의 약 163%)는 여전히 위험도가 '높음'. 현재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소유 부분 허용, 대규모 출자전환 방식 등을 실시 중이나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1.7%('16년, WB Databank)대로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평균(1.5%) 대비 다소 높으나, EU 및 OECD 평균(각각 4.4% 및 2.9%)보다는 낮음

3. 중국 경착륙? 그리고 현재 - (4) 결론



출처: 중국의 4대 금융리스크 진단과 경제경착륙 가능성 전망('16.6월), 한국수출입은행

- 최근 구조개혁 단행에 따른 '중속성장' 체제 전환기이며,
- 당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재정·통화 등 정책수단이 유효하여 금융리스크 통제 가능할 것으로 봄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 고려 시, 당분간 경제 경착륙보다는 'L자형 성장' 예상

4.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 - 경제·사회·정치적 오해



출처: 저자 자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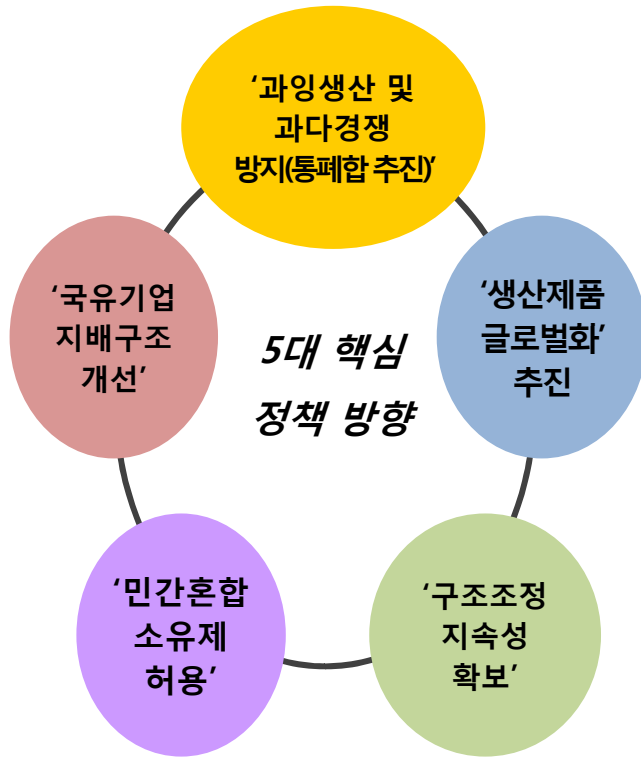
- 중국 경착륙 위기, 일당체제 붕괴설 등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시기임(知己知彼, "먼저 나를 알아야 함")
- 기업경쟁력 강화 역량은 물론 부정부패 척결속도도 한국을 이미 빠른 속도로 추월

- '중국이 느리다'라는 것은 고정관념임. 실제로 중국은 이득이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행동함을 알아야 함.
- 잘나가는 민영기업과 중국 최고 엘리트 들은 날밤새며 일하며 성과와 보상시스템이 미국 등 선진국에 못지 않음.

중국은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 중국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

5. 중국의 대국굴기 사례 - (1) 산업 구조조정 동향

정책 방향



주요 분야

철강

자동차/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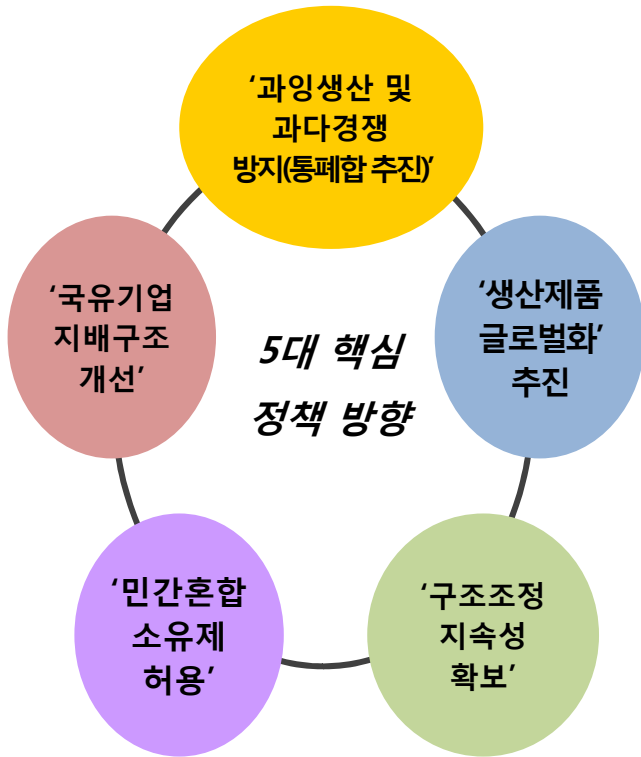
최근 동향

- 13차 5개년 기간('16~'20년) 중 1.5억 톤 감량목표 설정 후, '17년까지 이미 1.15억 톤 감량 완성(향후 3년간 약 3,500만 톤 추가 감량 시 목표 달성 가능)
- '16년 철강산업조정계획('16~'20년)에 의거 철강산업 집중도 60%(10개사 합산, '25년) 목표 지속 추진
 - ☞ '15년 중국 10대 철강사 산업집중도(조강생산량)는 34%, 일본 4대 철강사 83%, 미국 4대 철강사 70%, 유럽 8대 철강사 64%
- '15년 철강업규범조건에 의거, '17.4월 29개 블랙리스트 기업을 발표하는 등 통폐합 등 구조조정(兼并重组) 강화
 - ☞ '16.12월 바오산철강-우한강철 합병으로 세계 2위 철강사 탄생(생산량 6천만 톤). '17년 중비기업 퇴출 실시, '18년 중 비효율 철강생산 기업 대상 통폐합 진행 등 중장기적 구조조정 지속

- '17.4월 '자동차산업발전계획' 발표 후, 내연기관 자동차 외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등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 강화
 - ☞ 2030년까지 로컬자동차 및 부품기업 세계 10위 진입과 더불어, 신에너지차 부문 생산의 30% 해외수출 및 세계 최고기술 확보/선도
- 특히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의 '17년 판매량은 70만 대로 3년 연속 세계 1위(전년 대비 약 50% 성장)
- 정부보조금 등 각종 금융 지원, 글로벌 완성차 임원, 고급 기술자 영입하여 국제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로컬기업 글로벌화에 적극 기여(수출판매 확대)
 - ☞ '12~'16년 중 지리자동차 앞 정부보조금이 총이익의 19%를 차지하는 등 자국기업의 기술개발 보조금 전폭 지원

5. 중국의 대국굴기 사례 - (1) 산업 구조조정 동향(계속)

정책 방향



주요 분야

조선/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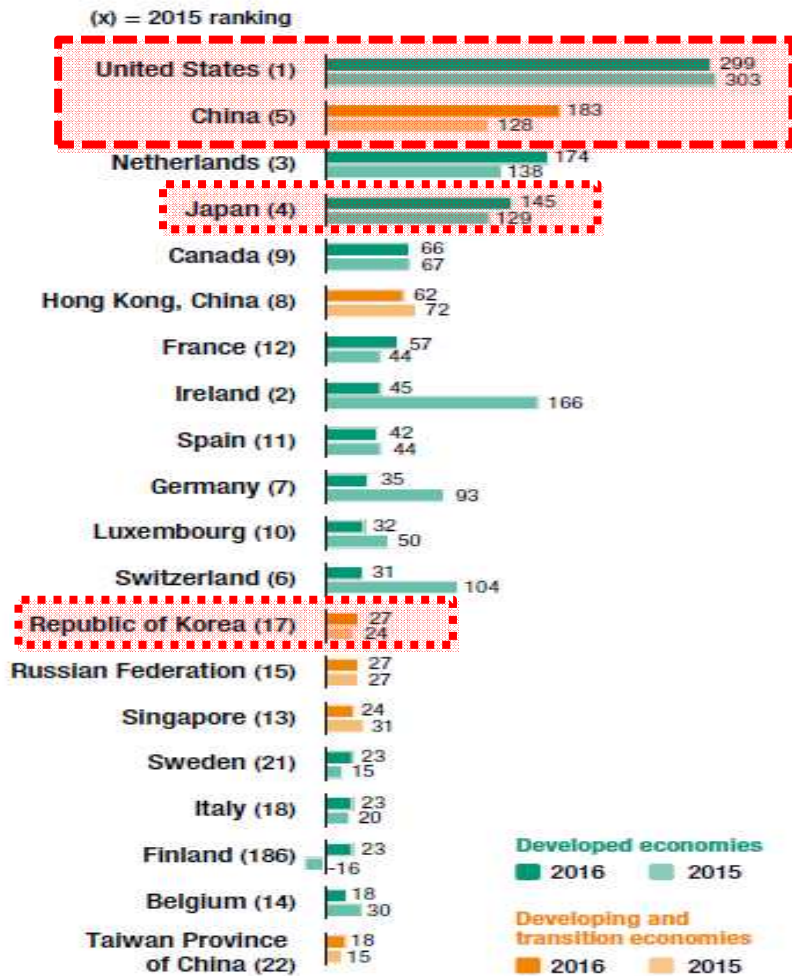
ICT/석유화학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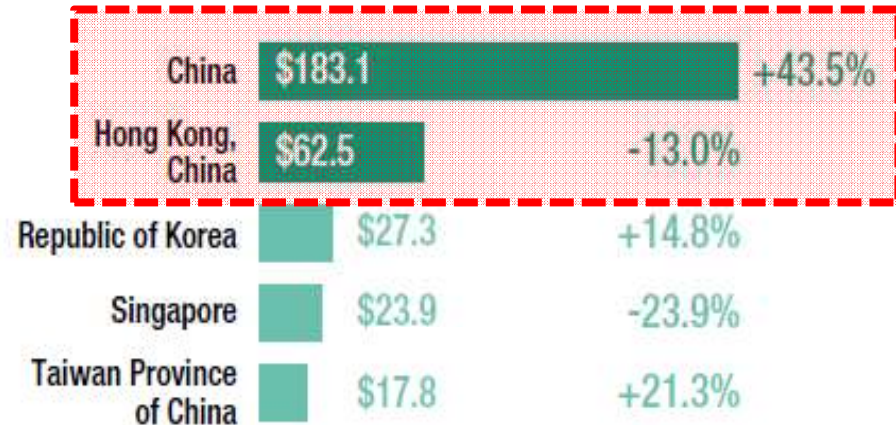
- '13.12월 선박산업의 생산과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산업 규범조건(船舶行业规范条件)을 시행, 동규정에 의거 화이트리스트(총 70개사, '17.10기준, 첨부 참조) 엄격히 관리 중
 - ↳ '15년부터 경쟁열위의 민영 및 국영기업에 대한 퇴출 실시, 17.4월에는 화이트리스트 기업 중 타 선박기업과의 기술력 중복, 자금 부족, 건조 능력 미달 시 블랙리스트(총 7개사)로 변경하는 등 심사기준 강화
 - LNGC, Mega Container 등 고부가가치 선박(한국 대비 열위선종) 관련, 화이트리스트 기업 중 중국선박공업집단(CSSC) 등 국유 조선소 위주로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강화
 - ↳ '16년 하반기 기점으로 국유 화주-선사-조선사 간 협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선박을 화이트리스트 국영기업 앞 발주 하도록 금융 리스 활성화 및 보조금(비공개) 지급 강화
 - '17.1월 '선박업 구조조정 심화 액션플랜('16~'20년)' 발표 후, CSSC-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 합병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산하 조선소 주식거래 금지에 이어, 양 조선소간 CEO 교체 근무 실시 등 합병절차가 진행으로 세계 1위 조선사(총자산 7,000억 위안) 탄생 기대
 - '15.8월 해운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16.2월 중국원양운송(COSCO)-중국해운(CSCL)간 합병으로 세계 3위 해운사 중국원양 해운 탄생. 이후 '17.7월 홍콩 오리엔트오버시즈(OOCL)도 인수
-
-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유니콤,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14개 기업으로부터 13조원을 투자 받는 혼합소유제를 허용하는 등 국유기업 지분구조 개선
 - 중국 화공그룹-중국중화학집단공사간 합병 추진으로 세계 1위 화학기업 탄생 기대 등 주요 국유기업간 합병을 통해 과잉생산 및 과다경쟁 방지와 더불어 국제경쟁력 동시 확보
 - ↳ 이를 통해 일대일로 사업 수주를 선점하는 동시에, 생산제품 글로벌화(수출판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

5. 중국의 대국굴기 사례 - (2) FDI outflows 동향

Figure I.14. FDI outflows, top 20 home economies, 2015 and 2016 (Billions of dollars)



Outflows: top 5 home economies (Billions of dollars and 2016 growth)



- '16년 기준 전세계 FDI outflows중 미국에 이어 중국이 2위(한국의 6.7배 규모)로 등급!
- 아시아(일본 제외)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FDI outflows가 가장 크고 '15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음.

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발취

5. 중국의 대국굴기 사례 - (3) M&A 동향

Cross-border merger and acquisition overview, 2005-2007 average, 2014-2016

(Millions of dollars)

Region/economy	Sales (net)				Purchases (net)			
	2005-2007 (Pre-crisis annual average)	2014	2015	2016	2005-2007 (Pre-crisis annual average)	2014	2015	2016
China	8 997	56 775	12 439	5 887	6 592	39 250	51 117	92 221
Memorandum								
India	3 488	7 857	1 323	7 841	12 335	1 021	- 612	8 581
United States	123 609	14 130	303 981	360 797	129 028	85 128	127 879	77 949
East Asia	24 917	80 250	32 998	20 580	12 036	107 544	76 074	102 199
Asia and Oceania	59 892	97 548	52 153	41 864	71 836	141 094	122 667	143 110
Developing economies *	82 005	129 357	84 364	69 315	105 810	154 536	131 153	149 857
World *	729 177	428 126	735 126	868 647	729 177	428 126	735 126	868 647

Announced greenfield investment project overview, 2005-2007 average, 2014-2016

(Millions of dollars)

Region/economy	As destination				As source			
	2005-2007 (Pre-crisis annual average)	2014	2015	2016	2005-2007 (Pre-crisis annual average)	2014	2015	2016
China	101 537	78 948	60 327	62 495	15 466	67 254	61 583	110 356
Memorandum								
India	40 246	25 900	61 764	62 843	16 009	13 460	13 590	18 133
United States	41 184	61 592	70 888	58 156	139 433	127 095	118 508	155 153
East Asia	119 681	97 847	85 524	82 391	59 077	118 621	119 809	176 389
Asia and Oceania	297 112	279 909	322 834	347 255	158 506	198 770	242 130	301 495
Developing economies *	420 634	457 980	461 953	515 744	172 962	220 438	263 686	321 222
World *	751 550	721 320	772 866	827 670	751 550	721 320	772 866	827 670

Source: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http://unctad.org/wir> or <http://unctad.org/fdistatistics>.

* Excluding Caribbean offshore financial centres.

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발취

2016년 중국 해외 M&A 업종별 거래 추이



<자료=Morning Whistle Group>

중국 기업의 해외 M&A 추이 (단위: 10억 달러)



출처: 뉴스핌('17.1월) 등 기사내용 발취

- '16년 M&A(Purchases net) 규모액이 과거 '14~'15년 총합을 초과
- '16년 신규 생산시설/법인설립 중심의 그린필드 투자도 과거 2년 대비 큰 폭 증가
- 유럽/북미 중심의 로봇, 기계 등 핵심 첨단 기술보유 기업 위주로 M&A 추진

5. 중국의 대국굴기 사례 - (3) M&A 동향 (계속)

		
		
		
<p>'17.1월, €450억</p>	<p>'17.2월, \$1.7억, 자동화로봇 솔루션</p>	<p>'16.1월, \$55.8억, 가전부문</p>
		
		
		
<p>'10.3월, \$18억, 승용차부문 '17.5월, U\$32.4억, 트럭/버스</p>	<p>'17.7월, \$18억 Flying Car</p>	<p>'16.4월, \$36억, 컨소시엄형, 프린터</p>
		<p>'17.1월, €5.45억, 전기부문</p>

출처: 중·미 각종 보도자료 참고

- M&A를 통해 기존 전통산업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보유 선진기업을 지속 매입
- 중장기적 산업정책 및 거대 인수자금으로 '산업고도화 강화+세계 선두 산업국가 진입' 목표 달성 계획

5. 중국의 대국굴기 사례 - (3) M&A 동향 (계속)

BAT의 AI·VR·전기차 굴기!

		
		
<p>'17.2월, AI음성비서 / '17.7월 딥러닝 / '17.8월, AI이미지처리</p>	<p>'17.11월, \$0.5억, QR-code 및 VR/AR</p>	<p>'17.3월, \$17.8억, 전기자동차, 5%지분 확보</p>

		<p>M&A 차단!</p>	
			
<p>'18.1월, \$12.8억, 송금결제서비스, 인수실패</p>			<p>'17.9월, \$13억, 반도체, 인수실패</p>

출처: 중·미 각종 보도자료 참고

- 최근 M&A에 따른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정부를 중심으로 자국 고급기술 유출, 국가안보 문제 심각히 지적
- '17년초 이후 해외투자 규제에 따른 M&A실패사례도 나오고 있으나,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제조강국')를 위한 핵심 기술기업 인수 등을 전략적으로 지속 추진 예상

5. 중국의 대국굴기 사례 - (4) 최근 혁신 동향

정책 방향



혁신 부문

소비경제체제
완비 및 지속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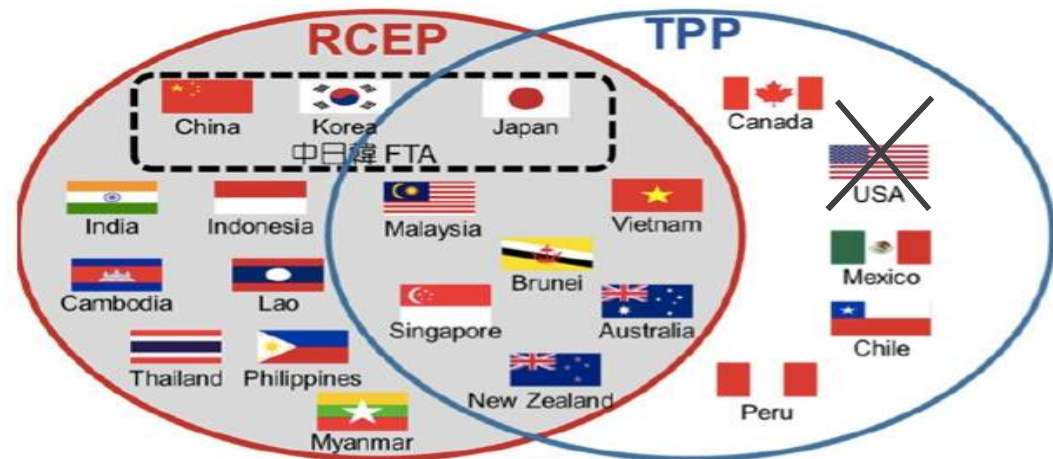
AI,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

창업생태계 지원
강화 및 확산

최근 동향

- 타오바오, 징둥, 티엔마오, 수닝 등 국내자본의 소비플랫폼 및 즈푸바오, 위챗페이 등 간편 결제시스템과 더불어 순펑, 셴통, 중국우체국 등 물류(배송)시스템 체계 구축 완비
 - ☞ 즈푸바오 및 위챗페이 이용자수 각각 5억 명, 8억 명 초과 및 '17년 배송건 수 400억 건 돌파(4년 연속 세계 1위)
- 소비플랫폼(빅데이터 기반)-결제-물류 간 유기적 연계로 소비 경제체제 전환 목표 달성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
 - ☞ '17년 광군절(11.11) 기간 알리바바 하루 매출액 250억달러(90%가 모바일 결제) 및 연간 모바일 결제액 1,210억 달러(미국의 1.7배)
- BAT 앞 AI선도 분야 배분, Baidu 자율주행차(아폴로2.0), Alibaba 스마트도시 개발, Tencent 의료/헬스 플랫폼 구축
 - ☞ AI부문 지적재산권 '10년 약 6,000건에서 '16년 약 3만 건으로 5배 증가 및 AI산업규모 '16년 100억 위안에서 '19년까지 3.5배 확대 전망(아이미디어 리서치) => '2030년 AI글로벌 리더 부상
- 원천기술 보유 등을 통해 드론분야 세계 1위(DJI) 지위 확보, 연구개발에만 DJI인력(약8천명)의 30% 투입해 드론기술 선도
- 우주항공 등 최첨단 산업용 3D프린팅 부문에서 미국(점유율 35%, '15년 기준)이 선두, 중국일본독일(각9%대) 2위 경쟁 중
- '15.3월 대중창업·만중창신 선언 후, 창업비용 축소, 행정절차 개선노력 실시, 혁신클러스터 내 민간주도 스타트업 형성 도모
 - ☞ 스타트업생태계(자금조달, 시장접근, 인재확보) 평가(스타트업게놈) 결과, 북경 및 상하이 각각 세계 4위, 8위 차지
- '17년 창업 건수 600만 돌파('15년 440만 건), 하루 1.6만 개 신생기업 탄생, 스타트업 지원기금수 500개 돌파('14년 100개)
 - ☞ 단 창업분야가 도소매 서비스분야에 집중(약 70%),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분야 창업 9% 수준, 최근 고부가가치 영역 이동 중

5. 중국의 대국굴기 사례 - (5) 국제 경제·정치 영향력



- 일대일로(AIIB, NDB 등), RCEP*를 활용해 지정학적 경제정치리더십 확보, 에너지수급 안정 및 수출판로 개척 추진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 총 16개국간의 다자간 FTA

-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협력, 현재 11개국) 탈퇴로 중국의 국제 경제·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 야기

출처: 한국일보 및 Baidu 등 기사내용 참조 및 재작성

5. 중국의 대국굴기 사례 - (5) 국제 경제·정치 영향력(계속)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미국이 아시아에서 수십 년간 유지해온 헤게모니의 급격한 쇠퇴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길에 오르는 가운데 필리핀의 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리처드 자바드 헤이다리안은 전날(현지시간)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헤이다리안이 꼽은 이유는 두 가지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성향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에서 입지 약화.

트럼프 대통령은 신고립주의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고수하며 동맹이든 적이든 동요하게 만들었다. 또 트위터로 장관설을 늘어놓거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공격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해체를 압박하는 등 가까운 동맹들로부터도 미국을 고립시켜왔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17.12월), 뉴스 1('17.12월) 등 기사내용 발췌

- 현재 SDR*통화바스켓 편입 이후, 위안화 국제화(거래량은 미 달러의 4.5%,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 64% 등)를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는 환율안정성에 초점

*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가상적인 국제준비통화

- 중국은 일대일로(AIIB 및 NDB사업, 위안화 사용) 가속화 및 원유선물거래 위안화 결제 확대 추진, 신흥국 중심의 결제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영향력을 지속 확대

2015년 위안화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영국 파운드와 더불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의 5개 통화 중 하나로 올라갔다. SDR 편입으로 위안화는 국제준비통화가 되는 데 한 단계 더 다가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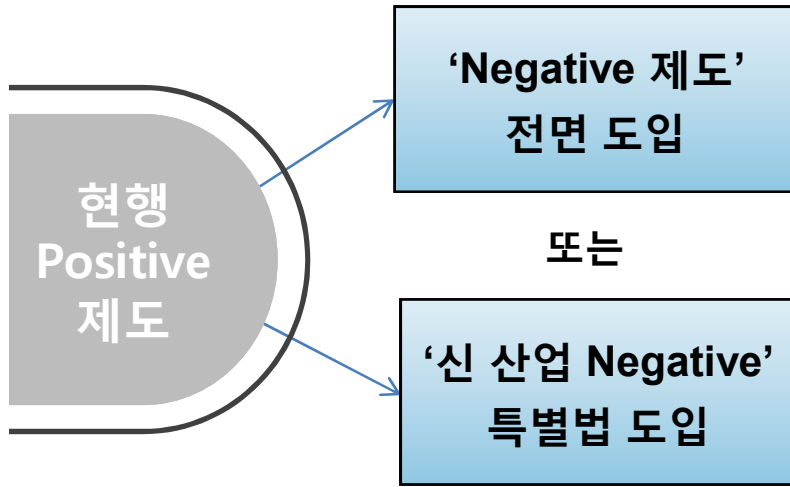
2016년 말 기준으로 세계 실물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를 넘어 미국과 함께 'G2' 체제(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차이메리카'라고 부른다)를 구축했다. 하지만 무역 등 국제 결제 시장의 위안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에서 위안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의미다.

중국이 주도하는 '달러체제 도전'도 눈길을 끈다. 이달 13일 중국 금융당국은 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할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계약'과 관련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월부터 '외환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의 결제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해 매도통화의 지급과 매입통화의 수취를 동시 처리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 간 원유 거래는 루블화 또는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분쟁에서 미국의 외면을 산 카타르 역시 액화천연가스(LNG)를 중국에 판매하면서 위안화를 받고 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우디도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는 중국 측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 후한 조건으로 받아안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국제사회는 사우디가 조만간 '1974년 미국과의 석유달러 밀약'을 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6. 한국이 살 길! - (1) 정부/국회 : 신속한 개혁, 구조조정 전략 재정비 필요



- 신산업 기술발전 및 역량강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정비 및 규제 개혁 단행(한국산업 '골든타임 임박!!!')
- ☞ Positive 제도 철폐 또는 신 산업 Negative 특별법 도입을 통한 투자 및 진입장벽 완화 시급
- 중국, 일본 등 주변 경쟁국의 구조조정 동향 파악 및 신속한 구조조정 전략 재정비 필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정책	10조원 규모 '혁신모형 펀드' 조성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 무활·에인절 투자 소득공제 확대	사내벤처 운영·분사창업 활성화
내용 및 취지	벤처기업이 인수합병이나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해 우수 벤처기업 육성	민간에서 혁신·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해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구축	기업 창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시 세제 혜택 늘려 창업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	대기업·중견기업 사내 창업 팀을 '에비벤처'로 보고 사업화자금 등 지원

내년부터 민간이 지원 대상 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이 창업 벤처정책 전반에 확대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지원액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TIPS는 사내벤처 지원제도,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 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 등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송실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뛰어 들 수 있도록 '민간주도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 중 첫 번째 대책이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민일보 기사('17.11.2자, "5년간 1천개 혁신벤처 발굴") 발췌

- 미래산업 육성 및 선별을 위한 분야별 산-학 전문가(실무 엔지니어, 교수 등), 정책입안자, 금융기관 간 소통창구 마련
- ☞ 산업고도화 전략을 위한 기술 제고·보호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강화할 필요
-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시, 정부주도/나뉘 먹기식이 아닌, 민간투자 주도/경쟁우위 기술 집중 지원군 선별 및 자금투입 확대 필요

6. 한국이 살 길! - (2) 기업 : 기술경쟁력 강화와 적과의 동침 전략!



- 중국 선진 또는 글로벌 일류기업과의 기술협력, 상호지분 투자/인수 및 공동사업 추진 필요
 - ☞ CJ대한통운과 같이 '15년 물류기업 통칭(荣庆)인수, '16년 가전기업 TCL 그룹과 물류합작사 설립 등 전략적 제휴로 원활한 중국사업 전개와 함께, 향후 사드사태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 대응능력 확보 필요
- '중국 시장이 곧 한국의 내수시장'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및 확산 필요(상세전략 20p 참조)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핵심) 산업 선별, 기술 보호를 위한 세밀한 제도장치도 마련
- 기회비용/기술수준을 고려, 열위 산업에 대한 정리 또는 타국 기업과의 전략적 합작 필요

6. 한국이 살 길! - (2) 기업 : 중국 내수시장 특성을 고려한 세부전략 수립!

<평균실질임금상승률·개인소비증가율>



출처: EIU

<가계소비 지출액 및 민간소비/GDP>



출처: EIU

<중국의 소비 계층 및 패턴 동향>

구분	상위계층	중위계층		
		중상층	중중층	중하층
연소득	월평균 2만 위안 이상	월평균 1만~2만 위안	월평균 5천~1만 위안	월평균 4천~5천 위안
인구	1,000만 명	5,000만 명	7,000만 명	6,000만 명
소비주체	베이징 등 대도시 소비자	'80~'90년대 전문직 중산자	'70년대 이후 여성 소비자	기존 소비자
소비패턴	고급 브랜드형, 지위 향상형	자기 만족형, 대중 선도형, 온라인 쇼핑형	실속형, 열망형	절약형, 저축형

출처: 각종 언론기사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6대 유망 소비재 품목 선정결과>

구분	상세 품목
승용차 및 소비용 운송장비	승용차, 전기자동차, 자전거 등
화장품	고급 화장품 외 중저가 화장품(3~5선 도시 중산계층 대상), 영·유아용 화장품 등
의류·패션	고급·중저가 의류, 영·유아용 액세서리 및 의류
식품료 제품·반제품	농축수산물, 친환경·웰빙, 영·유아용 식품료
생활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안마기 등 웰스케어, 목욕제품, 완구·유모차 등 영·유아용 제품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일반 가전제품, 고화질 TV 등 사치성 가전기기

출처: 저자 자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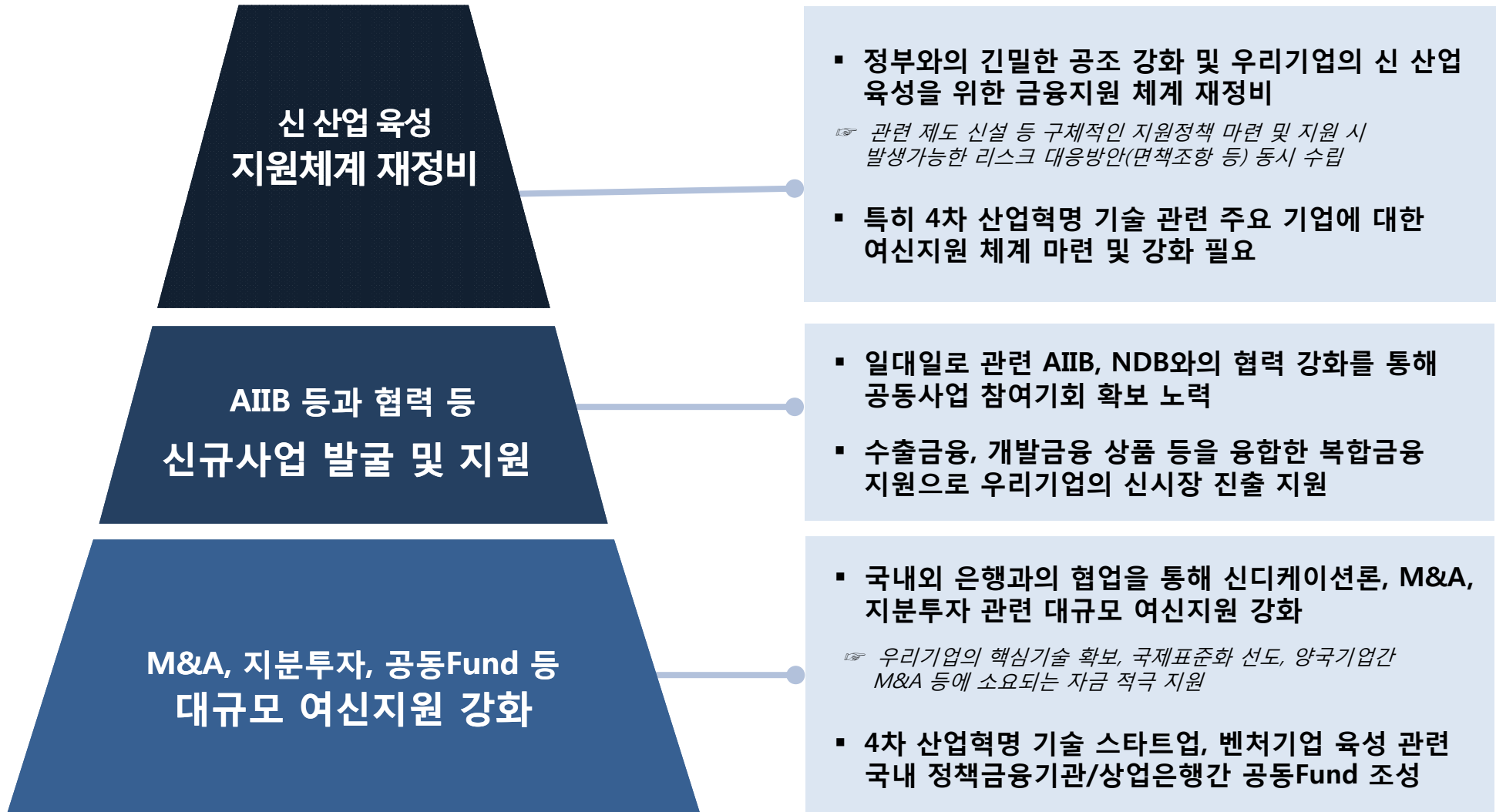
거시적 전략

- 한·중 내수시장을 분리하려는 이분법적 시각 탈피(탈중국 Never!)
- 소비계층 및 패턴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 진출전략 재정비

미시적 전략

- 중국 선진기업과의 상호 지분 교환, 기술투자 및 제휴 검토
- 필요에 따라, 모기업을 선(先) 중국 설립해 중국 내수시장부터 장악한 후, 한국으로 후(后) 진입 검토
- 중국의 상위계층, 중/하위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판매전략 수립
- 유망 소비재 품목 재정비 및 지역별 판매 제품 다양화 추진
- 기술육성 제품군 및 중국/글로벌 기업과의 기술제휴 제품군 차별화

6. 한국이 살 길! - (3) 금융기관(당행) : 양적·질적 지원체계 개선



첨부자료

< '17.10.20자 기준 화이트리스트^{주)} 기업 명단 추이 >

구분	2014년		2015.12월	2017.4월
	9월	12월		
선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江蘇新揚子造船有限公司 ·江蘇揚州大洋造船有限公司 ·山東省黃海造船有限公司 등 51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江蘇宏強船舶重工有限公司 ·台州楓叶船業有限公司 ·中船澄西船舶修造有限公司 등 9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江蘇揚子鑫福造船有限公司 ·江蘇新韓通船舶重工有限公司 ·南通潤邦海洋工程裝備有限公司 등 11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江蘇省華泰重工(南通)有限公司 ·浙江新樂造船有限公司 ·上海振華重工(集團)股份有限公司 ·福建省長興船舶重工有限公司 등 6개사
제외기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遼寧省大連遼南船廠 ·江蘇省熔盛重工有限公司 ·江蘇省南通明德重工有限公司 ·江蘇省東方海洋裝備有限公司 등 7개사
합계	51개사	60개사	71개사	70개사

주: 지역별 및 기업그룹별 전체 화이트리스트 상세는 '중국 조선사 저가수주 금융지원 관련 조사결과 보고('17.10월), 한국수출입은행' 참조

자료: 中國工業和信息化部 공개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자체 작성

참고문헌

한국수출입은행,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방안, 2016.3
_____, 중국의 4대 금융리스크 진단과 경제 경착륙 가능성 전망, 2016.6
_____, 중국 조선사 저가수주 금융지원 관련 조사결과 보고(상해사무소), 2017.10
_____, '18년 중국 경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상해사무소), 2017.11
_____, 4차 산업혁명 시기의 한·중 산업 정책 및 경쟁력 비교 연구, 2016.12
_____, TPP파급영향과 대응방안, 2015.12
한국은행,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북경사무소), 2017.11

FSB,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6, 2017.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2017.6

清华大学中国与世界经济研究中心, 2017-2018年中国宏观经济分析与预测, 2017.10

머니투데이(<http://news.mt.co.kr>)

매일경제(<http://www.mk.co.kr>)

사이언스타임즈(<http://www.sciencetimes.co.kr>)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파이낸셜뉴스(<http://www.m.fnnews.com>)

중국 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

중국 경제 데이터베이스(<http://www.ceicdata.com>)

중국 신화왕(<http://www.xinhuanet.com>)

중국 인민은행 (<http://www.pbc.gov.cn>)

중국 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Bloomberg(<http://www.bloomberg.com>)

WB DataBank(<http://data.worldbank.org>)



Thank you